

연구결과 평가서

연구과제명	귀국근로자 재통합 지원사업 신규 수원국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국제개발협력실행연구원	책임연구자	전용일
연구기간	2025.09.18. ~ 2025.12.16. (3개월)		
연구결과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일정 수준의 연구 수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국가 선정의 근거가 주로 일반적인 국가 현황자료 (경제·인구 등)에 기반하고 있어, 귀국근로자 재통합 지원사업의 성과 창출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다양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려 하였으나, 핵심 메시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전반적인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지시서 상의 기본적인 분석 항목 및 연구내용은 전반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선정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할 귀국근로자의 취업 가능성과 연계된 산업·직종 수요 분석이 미흡함. 특히 대상국 내에서 귀국근로자가 진입 가능한 직종, 해당 직종의 인력수요 및 필요역량 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연구 목적과의 정합성이 다소 떨어짐 ○ 연구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등 기본적인 연구방법을 차용하려 했으나,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의 양과 질이 적합하지 않아 기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됨. 예컨대, 국가 선정 지표가 거시적 수준의 경제·사회 지표에 치우쳐 있으며, 6대 사전타당성에 대한 논거로도 활용됨으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 모델에 의거한 분석과는 괴리가 있음. - 향후에는 귀국근로자의 직무 경험, 숙련 수준, 희망 취업분야 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예컨대 수원국이 희망하는 직업훈련기관의 매칭 이후 이 기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사업의 사전타당성 분석대상으로 하는 등의 미시적 접근이 필요함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국근로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일정 부분 활용 가능성은 존재함. 다만, 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산업·고용시장 및 직종별 수요 분석이 부족하여 정책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직업훈련, 취·창업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직무·역량 중심 분석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해당 과업을 실행할 기관의 수행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내용이 포함될 것과 함께 이를 수행할 직업교육훈련기관 담당자와의 면담 및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행 가능성에 대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임. ○ 기타 평가위원 및 과제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참고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